현불 논단

먼저 용서하고 당당해지길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2017년 美서 시작된 '미투' 운동
한국도 커다란 사회 변화로 부각
학교폭력 · 부모 빚 등 양상 다양

제도, 조직 보호 못 받은 약자들
미투로 가해자 고발 · 처벌 추진해
징벌 통한 사회정의 구현 '바람직'

뜬소문으로 타인 무고하는 단점도
학폭 등 청소년기 저지른 잘못을
인민재판처럼 심판도 옳지 않아
화해 · 용서 나아가야 올바른 미투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자유와 인권을 국가이념의 최고 가치로 두고 있다고 생각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이 운동은 급속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으로 커다란 사회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각계각층의 성폭행과 성희롱 사건들이 대중에게 노출되며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격렬한 미투의 광풍은 비단 성폭행과 성추행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부모가 과거에 빚을 지고 갚지 않은 '빚투'와 청소년 시절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학폭 미투'와 '운동선수 미투', '연예인 미투' 등 다양한 형태의 미투가 날마다 새로운 뉴스의 머리를 장식하곤 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조직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투를 통해서 가해자를 고발하고, 그들로부터 사과와 참회를 받아내고 늦으나마 법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를 편하게 하고 가해자를 징벌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으로 유명인을 공갈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해들은 이야기나 근거가 불확실한 뜬소문으로 타인을 무고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쪽의 기억과 입장만으로 상대방에게 죄를 묻는 일방적인 입장을 공개해서 왜곡과 오해로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 그룹 등 단체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었던 시대적이며 환경적인 문제의 무게를 함께 부담해야 함에도 개인과 일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와중에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사람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겠다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생각에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다.

청소년들의 특성은 왕성한 호기심과 도전의욕이고 이때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격동하는 감정과 행동이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와 같은 것을 말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이 그 시기에 드러나 해결이 되었거나 또는 해결이 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대중에 밝혀진다고 해서 인민재판 하듯이 당사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라고 본다.

상과 벌은 그 공로와 잘못에 따라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특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잘못이나 환경과 생각이 달랐던 과거를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질풍노도와 같은 대중의 여론으로 징벌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일일 수 있다.

'털어서 먼지가 나면 대중에서 지워버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접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스스로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투는 징벌만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가도록 해야 한다.

社 說

성보博 학예인력 확대 환영한다

2000년대 초반 성보박물관들은 사찰 문화재 소장 · 관리를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항온항습 시설과 같이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이 '성보박물관 전문 학예인력 확대'를 숙원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 인력 배치사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등록된 사찰 성보박물관 · 보장각 47곳 중 30곳에는 전문 학예 인력이 없다. 대부분 성보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할 필요가 있어 수장시설이 설치됐지만, 사찰 재정이 전문 인력까지 운영하기는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인력 배치 사업을 통해서는 4개 권역, 8개 운영기관이 선정됐고 운영기관들은 각 1명의 학예 인력을 국고 보조를 받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약하지만, 권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사찰, 문중 소장 문화재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하드웨어적 지원만 했던 문화재청이 학예 인력 확대라는 핵심적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도 의의가 크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권역별 학예 인력을 향후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제 시작된 성보박물관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학예 인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기대한다.

수미산원정대, 불교 중흥 '초석'

수미산원정대가 2월 27일 27명의 결사대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 중흥을 위한 서원을 남겼다.

수미산원정대는 2000만 불교교세 회복을 위한 불자배가운동을 전개할 핵심 인적 네트워크의 다른 이름이다. 5월부터 불자신도교육을 비롯해 수행과 성지순례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출가자 급감, 신도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위기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다.

신도 감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이로 인한 종단의 재정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그동안 불교계는 2000만 불자를 이야기 했지만 700만 불자의 결과를 받아든 2015년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길을 걸으면 만나는 수많은 선교행위를 볼때는 무례함을 느끼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열성적인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불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수준에서의 전법 포교에만 머물러 왔다. 즉, 사찰로 오는 이들을 불자로 만드는 데 주력해온 것이다. 이제는 찾아가는 불교로 변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서 불교를 전하는 적극적인 불교로 변화하고, 앉아서만 수행정진하는 데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바뀌어야 한다.

불교는 전세계 종교 중 종교를 만든 이가 스스로의 가르침 앞에서 낮추고, 겸손했던 유일한 종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과 집착과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시되었고, 선정과 함께 불교 수행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감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사회의 공감을 이끌고, 불교를 새롭게 하는 일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이주노동자와 장례문화

스리랑카의 장례문화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0% 이상이 불자인 스리랑카의 불교 장례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장례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갓집 앞에 흰색 천을 건 줄을 매어 상갓집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흰색 깃발을 걸도록 하며 또한 이 흰색 천이 많을수록 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조문객들은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며 담소도 나누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자와 홍차, 음료수를 준비하며 만약 식사 시간이라면 음식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든 준비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상갓집에서는 일주일간 요리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장례식 후원단체(maranadhara samitiya)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장례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간혹 5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3일장을 하며 장례 방식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스님이나 귀족은 화장을 하지만 그 외의 일반인은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 보통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든지 운동장을 빌려 그곳에서 화장을 합니다. 요새는 전기 화장터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은 금기하며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례를 금기시하는 장례 풍습에 의해서 만약 3일장의 마지막 날이 화요일과 겹친다면 자연스럽게 2일장이나 4일장으로 변경됩니다.

장례 의식도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스님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빈소에서 경을 외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사망 소식을 접한 스님이 먼저 고인의 집에 들러 상황을 살피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후 발인해 화장이나 매장하는 장례식 행사를 치러지는데, 이때 먼저 스님들이 장례법회를 합니다.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흰색 천과 공양물을 승가에게 올립니다. 축원하며 죽음의 명상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법회를 참여하는 스님들이 모두 담장 밖(Tirokutta:띠로꿋따)경을 독송하게 됩니다. 2~3시간 이뤄지는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의 유언을 듣습니다. 도시에서는 곧바로 매장하고자 한국처럼 운구차로 이동합니다만, 시골 마을에서는 상여를 직접 손으로 들어 어깨에 메고 운구합니다. 이런 장례 풍습이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스리랑카의 장례문화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제로 장례문화를 소개한 것은 지난해 한국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을 함께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업무 중 팔이나 다리 등 신체 부위의 상해를 입거나 다양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스리랑카 청년들이 2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장례식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하위하라 사원에서는 지난 2월 6일 한국에서 숨을 거둔 스리랑카인들의 영을 추모하기 위해 대념처경을 독송하고 영가들에게 공덕을 회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영가 이름으로 LED 등을 밝히고 기일마다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